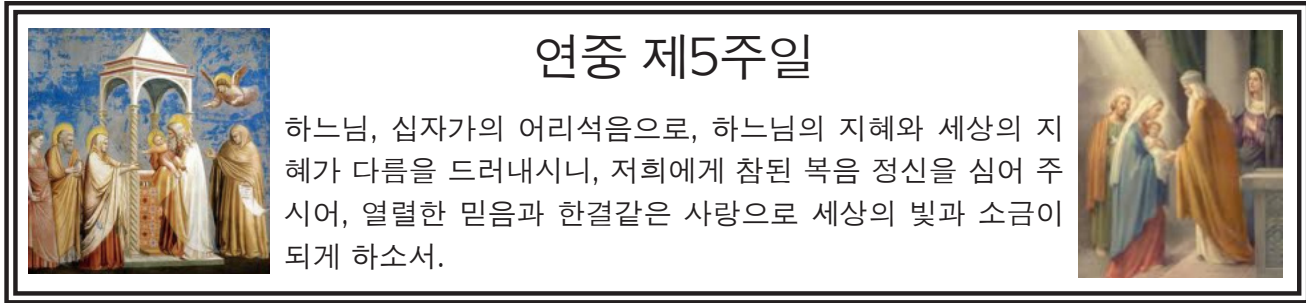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5주일

하느님,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하느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름을 드러내시니, 저희에게 참된 복음 정신을 심어 주시어, 열렬한 믿음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가정
-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교회와 사회가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도록 기도합니다.

견진교리 일정

- 일시 :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 회관
- 교재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성지 순례 모집

- 일시 : 4/22(화) ~ 4/26(토) 4박5일
- 장소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2/15(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평협 회의

- 일시 : 2/16(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새해, 첫 구역모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전례회의 : 2/9(일) 오후 1시, 회관
- '재의 수요일(3/5)' 이 다가옵니다. 성지가지 회수합니다.
- 2/23(일) 중심미사에, 홀리트리니티 본당에 과견 나와 계시는 안 에드워드 신부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미사 봉헌을 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2	211	498/164	19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고영방(스테파노) 고평원(프란치스코)	안광민(야 고 보) 정병훈(보니파시오)
차주	정수한(베 드 로) 정준구(파비아노)	차호섭(요 셉) 문석찬(요 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정준구(파비아노) 정병훈(보니파시오)
차주	최은미(아 네 스)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김말자, 배복선, 신혜경, 조경희
차주	백문주, 김정옥, 박정자, 최은미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엘리사벳),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최은미(아 네 스), 박희영(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2/2	78명	301불	1,060불
감영진, 한봉경, 민상기, Gorman, 문석찬, 김병철, 김정애(총 7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이러한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청합니다.

## 성화해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 5,16)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교회로부터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날마다 행하는 선과 믿음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 58,7-10 <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



◎ 어둠 속의 빛 처 럼 바른 사 람 을 비 추 도 - 다

- 인자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그는, 어둠속의 빛처럼 바른 사람을 비추도-다. 복되다 인정있고 꾸어주는 사람, 올바르게 자기 일을 처리하도다. ◎
- 흔들림이 항상 그에게 없고, 언제나 의인으로 기억에 남기리-라. 언짢은 소식에도 그는 아니 놀라니, 주님께 바라는 그 마음 든든하여라. ◎
- 그 마음 굳세어서 겁을 모르는도다. 그는 없는 이에게 기꺼이 나눠주어도, 의로움은 그대로 항상 남아 있으리니, 영광 속에 그 이마가 높이 쳐들리리라. ◎

제 2 독서 : 1코린 2,1-5 <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였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 마태 5,13-16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 쉐 마

##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릴 때 선생님들께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보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유관순 누나 등을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의 직책이 있습니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 직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러한 직책이 일정한 부와 명예를 보장해주시기도 합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판사, 의사... 등이 있겠습니다.

둘째는 한 분야에서 오랜 정진 끝에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학문을 연마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며, 요즘에는 예술과 컴퓨터 분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그러면서 일정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에 추대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특정한 직책에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한 분야에서 입신의 경지에 이르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청렴하며, 희생과 봉사 정신이 뛰어나고, 남에 대한 배려가 크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향기가 은은하면서도 멀리 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때로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조건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신앙인들이 자신의 직분과 직책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경지에 이르러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세 번째 이유로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역사를 지닌 교회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합니다. 그 빛과 소금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 교회의 건물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

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이름값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희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덕담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초는 자신의 것을 다 태워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소금은 모든 것을 주고 녹아야 맛을 냅니다.’ 빛과 소금처럼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삶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본당과 교회 시설들은 세상의 등대가 돼야 합니다.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희망의 빛을, 믿음의 빛을 밝혀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등대지기가 돼야 합니다. 그 삶이 비록 외롭고 고단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소금이 되어 모든 것을 내주었던 제2의 이태석 신부가 돼야 합니다. 제2의 마더 데레사가 돼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복지, 희생이 없는 복지, 십자가 없는 복지는 포장은 예뻐지라도 알맹이가 없기 마련입니다. 구호는 멋질지라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 마중물

## 교황님의 심장이식

교황님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이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이 많은 신자들을 광장에 불러 놓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교황님을 위해서 심장을 기증할 사람이 있습니까?”했더니,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면서 자기가 기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에는 심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기경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심장을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추기경이 “그러면 제가 깃털을 여기서 날릴 테니까 이 깃털이 머리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기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를 했지요. 그래서 이 추기경이 바로 깃털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

람에 이리 저리 날리다가 사람들 위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자기 위에 내려오는 깃털을 향해 입으로 ‘후후’ 불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깃털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더 문제는, 뒷짐 지고 바라보면서 ‘감 나라, 배 나라’말만 많다는 것입니다.

# ‘신앙의 해’교육자료

##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 78.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가 왔을 때 성부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성자의 일이며, 이것이 바로 성자를 세상에 “파견”한 동기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약속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이다”(교회헌장, 5항).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상에서 하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신비 안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63항 참조).

### 79.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 세상에 공공연히 나타났습니까?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세상에 공공연히 나타났습니다. “성부께서 성자께 지상에서 이루시도록 맡기신 일이 성취된 다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도록 파견되셨다”(교회헌장 4항). 그날 “교회는 많은 사람 앞에 공공연히 나타나, 설교를 통하여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선교교령, 4항).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성상 선교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파견하시어 그들을 당신 제자로 삼도록 하셨습니다(가톨릭 교회교리서 767항 참조).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